

‘우주메리미’부터 ‘키팬’까지…돌고돌아 다시 ‘로코’

해피엔딩·클리셰 가득한 연출…장르물·현실적 서사로 쌓인 피로감 해소

돌고 돌아 다시 ‘로맨틱 코미디’(로코) 붐이 불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종편 방송사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전형적인 로코 드라마들이 다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우식·정소민 주연의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지난 15일 마지막회(12회)에서 닐스코리아 전국 기준 9.1%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인기리에 종영했다. ‘우주메리미’는 50여일째 타운하우스에 당첨된 유메리(정소민 분)가 전 약

혼자와 동명이인인 김우주(최우식)와 90일간 위장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여러 난관을 거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위장이 아닌 진짜 결혼을 하는 결말은 ‘딱 단련 해피엔딩’으로 마지막까지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들었다. 지난 12일 첫 방송한 장기용·안은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도 클리셰(Cliche·뻔한 표현이나 장면) 가득한 로코로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위강감으로 위장 취업한

싱글 여성 고다림(안은진)과 우연한 첫 키스 이후 그에게 빠져버린 상사 공지혁(장기용)의 로맨스를 그렸다. 이 작품은 4화 만에 전국 기준 6.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평범한 여자에게 반하는 금수저 남자 주인공,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사라졌던 여자가 우연히 남자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서사 등 2000년대 초반 로코 드라마의 향수를 자극하는 연출이 입소문을 탔다. 글로벌 반응도 심상찮다. 넷플릭스 공개 첫 주 만에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3위를 차지하며 해외 시청자들의 호응



‘우주메리미’ 장면 일부 <SBS 제공>



‘키스는 괜히 해서!’ 장면 일부 <SBS 제공>

도 얻었다. 이는 최근 ‘당신이 죽었다’, ‘진애하는 X’ 등 무거운 소재의 장르물이나 ‘김 부장 이야기’ 같은 현실적 문제를 다룬 작품들 사이에서 가벼운 로코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청자들은 “살인·가정폭력 이야기나, 하이퍼 리얼리즘(극사실주의) 드라마를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로코로 해소하고 있다”라거나, “현생(실제 삶)도 고구마인데 드라마도 고구마는

싫다”는 등의 후기를 남기고 있다. 로코 드라마는 연기를 하는 배우 입장에서든 숨 돌릴 틈을 주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배우 이정재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이후 차기작으로 연예부 기자와 슈퍼스타의 사랑을 그린 로코 드라마 tvN ‘알미은 사랑’을 선택하면서 “전작들은 무게가 있었기에 좀 가볍고 발랄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상대역인 임지연 역시 “전작에서 어둡거나 고난을 많은 겪는 인물을 맡다 보니 제 나이에 맞는 가볍고 유쾌한 작품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른바 ‘연기 차력쇼’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감성전이나 자극적인 소재로 인해 피로감이 쌓인 배우와 시청자 모두에게 설레는 로코 드라마가 전략적 선택이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6일 천문역원 (062)673-2427
子	쥐띠: 낮은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가슴이 답답하다. 36년생 모든 일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48년생 자신의 상태를 철저히 주의하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60년생 행복을 원한다면 어떤 인연도 쉽게 끊지 않는 게 좋다. 행복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72년생 오늘 하루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84년생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주변 환경을 바꾸면 필요한 인맥을 만날 수 있다. 행운의 수: 48 행운의 색: 검은색	
	소띠: 전문분야가 맞거나 말거나 말은 일은 깔끔하게 해야 상생한다. 37년생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나은 날이다. 49년생 가까이 있는 것이 겉게 물들면서 악화하는 상황이다. 61년생 본인의 행복과 참살이에 집중하라. 73년생 어떤 일이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전에는 설부터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85년생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97년생 순수한 열정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니 그 열정을 따라가보자. 09년생 내 노력과 끈기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행운의 수: 33 행운의 색: 주황색	
丑	소띠: 소신껏 임하면 절반의 성과는 거둘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38년생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렵더라도 중요한 덕목이다. 50년생 길에서 발견한 물건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 게 현명하다. 62년생 손에 주먹을 꽂고 있다면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일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74년생 주변 사람들과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6년생 여행을 갈 경우, 소지품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라. 행운의 수: 59 행운의 색: 빨간색	
	토끼띠: 자질구레한 것은 모두 정리하고 크고 반듯한 것을 두는 것이 좋다. 39년생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다 보면 외로워질 수 있다. 51년생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게 될 것이다. 63년생 품질이 우수한 선택은 단기적인 비용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75년생 가장 소중한 여가는 사람에게 더욱 진심을 담아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87년생 잠시 멈추고 차분하게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 99년생 어떤 일이든 간에 책임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행운의 수: 24 행운의 색: 파란색	
寅	용띠: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위험성이 줄어든다. 40년생 사람과 의논하거나 협력할 때,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정보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 52년생 계속해서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잊지 말고 스스로 찾아가자. 64년생 받은 것이 없어도 주고 싶은 것은 한없이 많으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76년생 급한 마음에 움직이면 실수하니 평상시처럼 그다지 편안하게 지내자. 88년생 가정주부라면 집안일을 하며 마음의 정리를 함께해볼 수 있겠다. 00년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흰색	
	뱀띠: 미진한 구석이 있으면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심신이 편안하다. 41년생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53년생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으나 며칠 뒤로 미루는 것이 이롭다. 65년생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전해지는 하루다. 77년생 밑으로 내려가도 좋고 올라가도 좋으나 두 가지를 다 잡지 못한다. 89년생 오늘날 기라니 끝에 얻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마련이다. 01년생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수: 08 행운의 색: 갈색	
卯	말띠: 가타부타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장고하면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다. 42년생 가능한 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유지해보자. 54년생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득이 있다. 66년생 걱정을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78년생 심중은 있으나 물줄기 없다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두는 것이 좋다. 90년생 무언가를 입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는 하루다. 02년생 집안일이 힘든 곳에는 일선 하지도 말고 편안한 장소에서 마무리자. 행운의 수: 46 행운의 색: 노란색	
	양띠: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곤란한 날이다. 43년생 기억에 없는 모습을 억지로 떠올리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55년생 한곳에 묻히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이다. 67년생 근거지가 없으면 서둘러 마련해야지, 그래도 있으면 변함이 없었다. 79년생 능력이란 항상 오르내림이 있으니 한곳에 머물지 마라. 91년생 어두운 곳에서 밝은 태양을 만나는 운세! 원하는 것은 얻는 하루다. 03년생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햇살이 비치니 상승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행운의 수: 34 행운의 색: 초록색	
辰	원숭이띠: 새로운 것을 인정하고 뛰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없이 좋겠다. 44년생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성취하고 높이 올라선다. 56년생 칼을 한번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냥 칼집에 넣을 수 있겠다. 68년생 돈보다 소중한 것을 가졌으나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니 안타깝다. 80년생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92년생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는 응당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04년생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지만 따뜻한 시선이니 편하게 받아들이자. 행운의 수: 16 행운의 색: 보라색	
	뱀띠: 적재적소에 맞게 행동하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는 시점이다. 45년생 버릴 것은 버려야지 아깝다고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면 밤새만 난다. 57년생 주변이 부산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눈과 귀를 열려라. 69년생 알고 행하는 것보다 모르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81년생 몸과 마음이 하나의 선상에서 움직이면 어려움으로 유익한 현상이다. 93년생 어수선하게 움직이면 곤란하니 교통정리는 제대로 한 후에 행동하라. 05년생 시작과 끝이 한결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민트색	
巳	개띠: 어디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고민하는 운세다. 46년생 거칠게 뿌리치면 새끼가 울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은 극히 위험하다. 58년생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행하는 것이 유익한지 무익한지를 판단하자. 70년생 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는 시점이다. 82년생 내가 결정할 문제를 타인에게 맡기려는 행위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94년생 따스한 말 한마디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이다. 06년생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흰색	
	돼지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 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다. 35년생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은 힘을 다하라. 47년생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보자. 59년생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길 때다. 71년생 용기와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83년생 화합하지 않으면 아프고, 화합하면 제 뜻을 펼칠 수 있는 운세이다. 95년생 민음이란 억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흐름 뒤에 얻는다. 행운의 수: 79 행운의 색: 다홍색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 ~ 08:53)

프로듀서: 정희준 | 진행자: 노혜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 ~ 15:53)

프로듀서: 권유경 | 진행자: 윤지현 | 작가: 정안숙
즐거움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거우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 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남도매거진 (16:05 ~ 16: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장원나 |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달리는 라디오 (18:05 ~ 19:53)

프로듀서: 김미경 | 진행자: 최유경 |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광주방송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KCTV특집 < 지방소멸과 AI, 데이터를 확보하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 2025 AI : 디지털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 공공공익 다류 선정작. AI 시대 속 왜곡되고 잊혀지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학습데이터 구축의 부실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조명한다.
방송 : 11월 24일(월)~26일(수) 21:00~21:50

네트워크발굴 서울광광 < '우아한' 광주 대표 개장 맛 >
4곳의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의 맛과 맛의 현장.
이번 화는 광주 동곡의 개장의 맛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촌동의 우아한 개장을 찾아가 그 맛의 진수를 경험한다.
방송 : 11월 27일(목)~11월 21일(금) 20:20~20:50

SO네트워크 < 오! 정태보고 전남 순천 편 >
방송인 오정태와 떠나는 지역 케이블방송사 공동제작 '짠' 현지 탐방프로그램.
국가 정원으로, 생태도시로 '뜨고 있는 도시' 순천을 찾아가.
방송 : 11월 29일(토)~30일(일) 13:00~13:50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나 다양한 주요 소식들,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재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CMYK